

## '빛의 속도'에 중독된 현대인의 강박과 욕망

한국통신의 '메가패스' 광고

마정미 | 광고평론가

“현대인의 삶에서 ‘속도’는 어느새 도그마가 됐다. 이 시대에 속도는 발전과 진보의 동의어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더 많이, 그리고 더 빨리’에 대한 강박은 사실 지식과 정보에 관한 강박이며, 이는 권력과 지배에 대한 욕망이다. 드라이브(drive)는 충동으로도 번역된다. 결코 만족할 수 없고 채워지지 않는 갈급증이라는 것이다.”

인터넷과 관련해 빈번하게 쓰이는 수사 가운데 하나로 '빛의 속도'라는 표현이 있다. 그야말로 어느 광고 카피처럼 '힘을 제압하는 것은 속도'인 세상이니 '빛의 속도'가 주는 희열은 이 시대에서 가장 값진 교환가치다. 그러나 교환가치는 필연적으로 소외를 생성해내는 법. '속도'의 희열은 곧 '속도'에 대한 강박과 소외를 낳는다.

### 한국통신의 '선전포고'

시간과 속도는 근대 영화와 광고에서 종종 다루는 소재지만 이 '빛의 속도'를 그야말로 가지적으로 형상화시킨 광고가 등장했다. 엄청난 제작비와 매체비를 쏟아붓고 있는 한국통신의 '메가패스'(Megapass) 광고가 그것이다. 무협사극을 방불케 하는 이 스펙터클한 CF는, 깃발이 나부끼는 초원에 도열한 백만대군이 '빛의 여왕'(이나영)이 전해준 '메가패스'를 받아 빛의 화살을 쏘아올리는 장중한 전장(戰場)을 보여준다. 광고에서 전쟁터라는 메타포를 사용한 것처럼 텍스트를 벗어나 현실을 들여다보면 초고속 통신망 회사들의 전쟁은 그야말로 치열하다. 이 광고는 하나로통신, 두루넷 등과 초고속통신망 시장의 패권을 다투는 한국통신의 '선전포고'인 셈이다. 비대칭가입자라인(ADSL), 빌딩&아파트(B&A), 위성인터넷 등 3개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통합한 새 브랜드 메가패스는, Mega(100만)와 pass(통과, 전달)라는 그 작명만으로도 속도와 양에 압도되게 만든다.

현대인의 삶에서 '속도'는 어느새 도그마가 됐다. 이 시대에 속도는 발전과 진보의 동의어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더 많이, 그리고 더 빨리'에 대한 강박은 사실 지식과 정보에 관한 강박이며, 이는 권력과 지배에 대한 욕망이다. 드라이브(drive)는 충동으로도 번역된다. 결코 만족할 수 없고 채워지지 않는 갈급증이라는 것이다. 도로와 철도, 자동차와 비행기의 발명이 공간의 거리를 축약시킨 축지법이었듯, 네트워크의 축지법은 시간과 공간을 단축시킨다. 그러나 전기구의 정보망을 바탕으로 집결시키는 인터넷 앞에서 사람들은 그 접속시간에 조바심치고

그 약간의 시간단축을 위해 거대자본과 테크놀러지가 투입된다. 목도하다시피 정보망은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소비재기 때문이다.

덕분에 우리는 마치 브레이크가 없는 버스처럼 내쳐달리고 있다. 소설가 김연수의 단편에서처럼 '텐션'과 '스피드'는 인간을 매료시키고 죽음에의 충동을 일으킨다. 우리의 질주는 더 나은 세상을 앞당기기 위한 진보의 질주지만, 사실 맹목의 드라이브 끝에 있는 것은 죽음이다. 어느새 질주의 목적보다는 속도에 함몰돼가며, 속도가 주는 쾌감과 황홀감에 중독된다. 밀란 쿤데라는 '속도는 기술혁명이 인간에게 선사한 엑스터시'라고 《느림》(민음사)에서 말했다. 테크놀러지의 싸늘함과 엑스터시의 기묘한 결합을 보여주는 J. G. 발라드의 소설 《충돌(The Crash)》이 보여주는 풍경처럼 현대인은 기계와 인간, 삶과 죽음의 간극을 즐겨 넘나든다.

### 느리게 살 수 있는 권리

속도에 대한 강박은 '앞으로 전진하는 시간'을 만들어낸 시계의 발명에서 비롯됐다고 석학들은



한편의 무협사극을 떠올리게 하는 한국통신의 '메가패스' CF는 속도에 대한 현대인의 강박증을 떠올리게 한다. 현대사회에서 속도는 발전과 진보의 동의어다. 운송수단의 발전이 공간을 축약시킨 축지법이었듯, 네트워크는 시간과 공간을 단축시키고 있다. 이제 세계는 브레이크가 파열된 버스와 같다. 그렇다면 이 질주의 종착역은 과연 어디일까? 속도가 주는 쾌감과 황홀감에 중독된 현대인들이 한번쯤 곱씹어 봐야 할 물음이다.

주장한다. 근대기획의 출발이 여기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러나 폴 라파르그의 《계으를 수 있는 권리》(새물결), 버트란트 러셀의 《계으름에 대한 찬양》(사회평론)은 '그렇게 열심히 내달려서 우리가 행복해졌느냐'고 묻는다. 일찍이 프로이트는 《문명과 그 불만》(열린책들)에서 문명의 발달은 인간을 더욱 억압하는 기제라고 갈파했다. 욕망을 잘 분배하고 자신의 리비도를 관리하는 것이 그야말로 인류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이다. 모든 사람이 니어링 부부나 소로우처럼 욕망을 버리고 숲에 은거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도 잠시나마 충혈된 눈을 쉬어야 하지 않을까.●